

쇠락의 길로 접어든 유럽 철강산업, 회생 가능성 있나?

임정성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jsimm@posri.re.kr)

목차

1. 아직 금융위기 여파에 있는 유럽 철강산업
2. 불황으로 표출된 구조적인 문제점
3. 살아남기 위한 철강사의 최후 결단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5. 결론 및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유럽 철강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재정위기의 더블 펀치를 맞고 큰 타격을 입었는데, 수입재가 급증하면서 산업 몰락의 경고까지 대두
 - 2014년부터 중국산을 위시해 수입재가 급증, 열연가격이 톤당 U\$200대까지 하락하여 철강사들이 최대 경영위기를 맞음
- 유럽 철강업계는 수요, 공급, 비용, 정부체제 등 4대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경쟁력 회복에 난항
 - 수요부진: 경제 성숙화 및 서비스산업 확대로 저성장 및 저철강소비 시대 진입
 - 과잉공급: 4~5천만톤 능력감축이 필요하지만, 노조와 정부의 반대로 쉽지 않음
 - 고생산비용: 환경/에너지 및 노무 비용이 지속 상승해 타지역 철강사 대비 불리
 - EU 체제: 관료주의화에 따른 효율성 약화로 위기의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
- 이에 철강사들은 고부가가치화 추진은 물론 제품특화, M&A, 글로벌화,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유사한 전략 추구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
 - 고부가가치화: ArcelorMittal, Tata, ThyssenKrupp 등 대형 3사는 자동차강판 등 고급강판에 집중하고, 중형사들은 후판, 형강, 강관, STS 등 특정제품에 특화
 - M&A: 2000년대 중반 대규모 M&A 통해 유럽시장에 진입한 Mittal과 Tata는 추가적인 M&A를 통해 사업 경쟁력 개선을 추진 중이나 여의치 않은 상황
 - 사업다각화: ThyssenKrupp 등 일부는 구조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철강산업에서 Exit을 검토
- 한편, 순환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부상하고 있어 관심 대두
 - 현재 'Greensteel 전략'과 '탈일관화(De-integration) 전략'이 대표적이며, 과거 유산에서 자유로운 비유럽계 기업 및 기업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한국 철강산업은 기본적으로 EU와 비슷한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주요 수출시장이자 선진기술개발 동향을 습득해온 EU 철강산업의 쇠락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고 위협과 기회 요인 검토 필요
 - 극한적 원가절감, 내수시장 지키기, 동북아 3국 간 협력 등의 대응책 마련 시급
 - 21 세기형 순환경제 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모델 및 사업방식 적용 검토

1. 아직 금융위기 여파에 있는 유럽 철강산업

□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EU 경제와 철강산업이 모두 큰 타격을 입었는데,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쳐 아직도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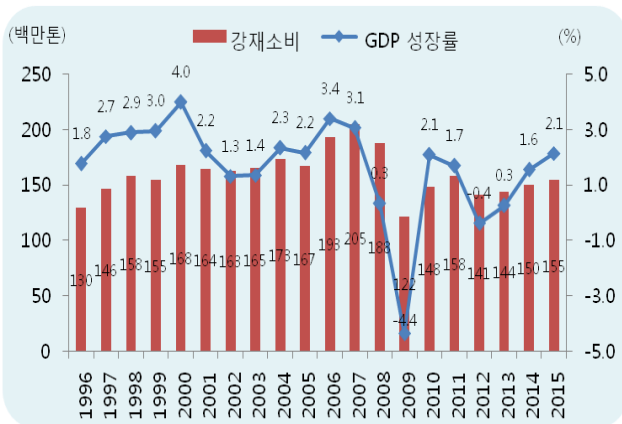
○ EU 철강업계는 2014년 시황 악화로 수익성이 하락하자 급증한 중국산을 맹비난 했지만, 사실은 금융위기로 체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얻어맞은 어퍼컷

□ 2015년 현재 피크(2007년) 대비 강재소비는 75% 수준, 조강생산은 79% 수준 회복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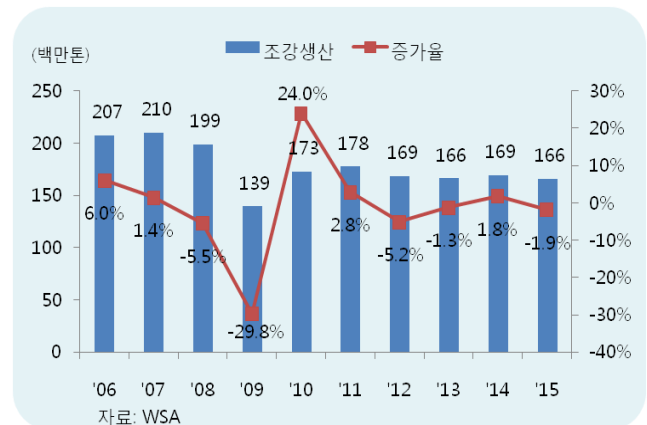
○ 강재소비는 2007년 최초로 2억톤대를 돌파했으나, 2009년 1억 22백만톤까지 하락한 후 1억 5천만톤 전후에서 정체 상태

○ 조강생산도 2007년 2억 1천만톤까지 증가해 과거 영광을 재현하는 듯했으나, 금융위기로 급감한 후 2012년부터 1억 7천만톤을 하회

〈EU(28국)의 강재소비 및 조강생산 추이〉



자료: WSA



자료: WSA

□ 이러한 수요부진 속에 강재수입이 연평균 20%씩 증가한 반면, 수출은 정체하여 결과적으로 가격 폭락 사태에 직면

○ 특히 2014년 중국산이 전년비 72% 증가하면서 긴장감을 높였고, 2015년 다시 37% 증가하여 위기감 조성(러시아산을 제치고 1위로 부상)

○ 강재수출 길도 막혀 열연가격이 2015년 말과 2016년 초에 톤당 U\$200 대까지 폭락하여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하락

- 열연가격이 톤당 U\$200대로 폭락한 것은 2000년대 초반 불황 이후 처음

〈EU(28국)의 국가별 수입현황〉

(백만톤)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터키	한국	합계*
'14	6.2	6.4	6.1	2.5	1.8	26.9
'15	8.5	7.6	5.5	2.5	2.4	31.6
비중('15)	26.9%	23.9%	17.4%	8.0%	7.6%	100.0%

주: 반제품 포함, 합계*에는 기타국 수입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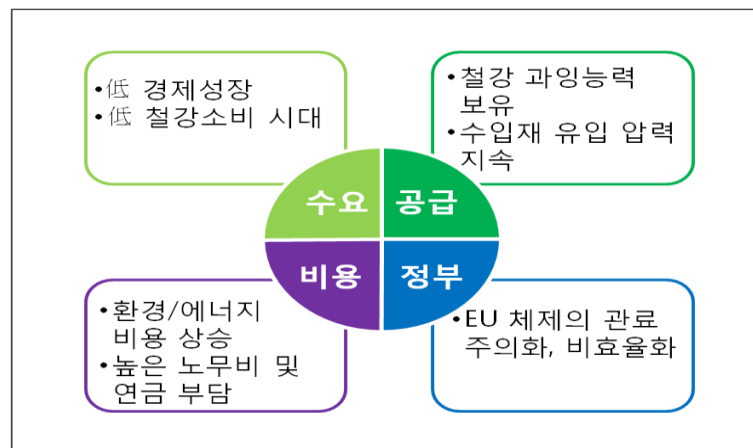
자료: ISSB

2. 불황으로 표출된 구조적인 문제점

□ 철강 소비와 생산에서 세계 2위인 EU의 철강산업 경쟁력은 수요, 공급, 비용, 정부체제 등 4대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점차 약화

- 시간이 경과할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과잉능력 등 1970년대 이후 적체된 문제까지 포함해 유럽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훼손

〈EU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



□ (①수요)경제 성숙화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서비스산업 비중도 늘어 철강재 사용이 감소되고 있는데, 추세 역전은 거의 불가능

- 금융위기 후 2% 이하의 경제성장률이 지속돼 왔는데, 미국 IHS에 따르면 2015년(2.1%)을 피크로 앞으로도 성장률이 계속 하락할 전망
 - 3차 서비스산업 비중은 2015년 73.4%에 달했으며, 건설을 포함한 2차 산업 비중은 25.0%에 불과
 - 이 같은 정체된 경제구조는 2012년부터 0.1%대로 진입한 인구증가율과 고령화 진전, 11%의 높은 실업률(청년층 약 30%)로 인해 개선되기 어려움
 - 이민자 유입으로 경제 역동성을 살리는 정책은 각국에서 거센 반대에 부딪쳐 정치가 포퓰리즘과 우익화 경향으로 나가는 계기를 촉발

- 인프라 건설 위한 재정 부족 등으로 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의 철강소비 비중도 39%('06~'10년)에서 33%('11~'15년)로 감소
 - 자동차산업도 70% 이하 가동률에 U\$50억의 누적손실로 공장폐쇄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상황이나 미국과 달리 강력한 정책과 리더십 부족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구조
- 이에 EU 철강수요는 2025년까지 연평균 1% 남짓 증가한 후 2035년부터는 쇠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세계철강협회의 EU 중장기 강재소비 전망〉

(백만톤)	2015	2020(F)	2025(F)	2035(F)
강재소비	153.6	164	171	167
연평균성장률	0.9%(10~15)	1.3%(15~20)	0.9%(20~25)	△0.3%(25~35)

자료: WSA('16.10)

- (②공급)1977년부터 지속된 생산능력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어 과잉능력 문제가 반복적으로 대두
 - 오일쇼크 이후 가동률이 60%를 하회하자 EU 차원에서 과감한 시장 통제 정책을 실시하여 1988년 70%대, 26년 만인 2000년 80%대를 회복
 - 그러나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발 호황에 힘입어 생산능력을 증대시킨 상태에서 금융위기가 닥쳐 2013년부터 가동률이 다시 약 70%로 하락
 - 이에 Eurofer(유럽철강협회)의 Eder 회장(Voestalpine CEO)은 15년 내 공급능력을 50% 감축하지 않으면 EU 철강산업이 몰락할 수 있다고 경고
 - 많은 전문가들은 EU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4~5천만톤의 능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
 - 유럽 철강산업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Mittal과 Tata는 과감한 설비폐쇄를 단행하고자 했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노조와 현지정부의 반발에 부딪침
 - 개별회사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어 EU 차원의 철강산업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1977년 다비농플랜 이후 36년 만에 처음으로 2013년 'Steel Action Plan'이 마련됨
 - 한편 EU가 철강산업 구조조정과 투자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 방향성 제시에 그쳐 단기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움

[참고] 1977년 다비농플랜 vs. 2013년 Steel Action Plan

- **다비농플랜:** 과잉설비에 따른 가격하락을 막기 위해 생산량 키퍼와 최소가격 설정, 노후설비 폐쇄 위한 보조금 지급, Eurofer 주도의 카르텔 인정
 - 문제는 380억 ECU의 지원금 중 설비폐쇄에는 20억 ECU만 지급되고 대부분은 공장 운영/개선 투자에 사용되어 부실기업의 생명만 연장했다는 연구분석 결과
- **Steel Action Plan:** 1)산업경쟁력 저해 규제정비, 2)철강수요 촉진, 3)원료·교역관련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4)에너지·환경·원료 정책 개선, 5)혁신적 R&D 활동 지원, 6)용이한 구조조정을 위한 노동자 훈련교육 지원

○ 한편, 유럽은 세계 1위 철강수입 시장으로서 주요 철강사의 타깃시장이 되고 있는데, EU 체제에서는 수입재를 효과적으로 막기가 어려움

- 원료를 보유해 저원가 생산이 가능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철강사가 인근에 있는 데다 동북아 철강사들은 미국시장이 막힐 경우 유럽시장 공략을 강화
- EU는 수입재 급증으로 설비와 인력 구조조정의 효과가 무위로 그칠 우려가 있어 수입 억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대응이 느리고 한계가 있음
 - 수입재 모니터링 강화, 반덤핑 조사와 관세부과 확대, 최소부과원칙(덤핑 마진과 피해마진 중 작은 쪽 선택) 폐지 추진, 다자간 협상 외 양자간 협상 추진 등

□ (③비용)환경/에너지 비용과 노무비 등 생산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EU 철강업계의 국제 경쟁력은 점차 약화

○ EU가 세계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면서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비중이 높은 철강산업이 직격탄을 받게 됨

- Eurofer는 환경·에너지 등 각종 규제비용이 철강사 이익의 10~35%에 이른다고 EU 집행위에 공정한 국제경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
- EU의 ETS(배출거래시스템) 하에서 철강업계는 3단계('13~'20년)에 조강 톤당 15유로, 4단계('21~'30년)에는 17유로 비용 부담 예상
- 또한 EU 철강업계는 노후설비가 많아 톤당 전기소비량이 높은 데다,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고 있어 전기료가 높은 수준

○ 한편, 계속되는 구조조정에 따른 종업원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높은 노무비와 지속적인 연금 부담은 유럽 철강사의 발목을 잡고 있음

- 특히 국영기업 유산을 가진 EU 철강사의 연금부담이 높는데, 종업원 수를 감축해도 퇴직자의 연금 부담은 남아 비용 감축이 어려운 상황

- Tata의 경우 UK 사업장(구 국영 British Steel)의 연금 수령자 수가 13만 명, 연금 적자규모가 3억 파운드에 달해 매각 또는 M&A 성사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

□ (④EU체제)EU의 가입국 수 확대로 시장규모가 커진 반면, 이질성 확대와 관료주의화에 따른 효율성 악화로 철강산업을 보호하는 데 한계 직면

- 규모는 거대해도 단일국가인 미국·중국·인도와 달리 제도와 법률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힘든 구조
 - 예를 들어 2013년 EU 집행위가 발의한 무역구제조치 개정안을 2016년 말에야 이사회가 합의했고, 금년 의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승인해야만 시행 가능
- 이에 2016년 58개 EU 철강사 CEO가 연대해 EU 집행위에 철강산업 붕괴를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회생시킬 것인지 결단을 촉구하는 서신 전달
 - 특히 국가 경제에서 철강산업의 비중이 높은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철강산업을 포함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EU 탈퇴 주장이 거세짐

3. 살아남기 위한 철강사의 최후 결단

□ 수요부진, 비용상승, 과잉능력의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한 유럽 철강 업계는 산업 내부 뿐 아니라 이업종 전환을 통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

- 고부가가치화 추진은 기본이고 제품특화, M&A와 함께 글로벌화와 다각화를 추진 중인데, 대부분 유사한 전략 추구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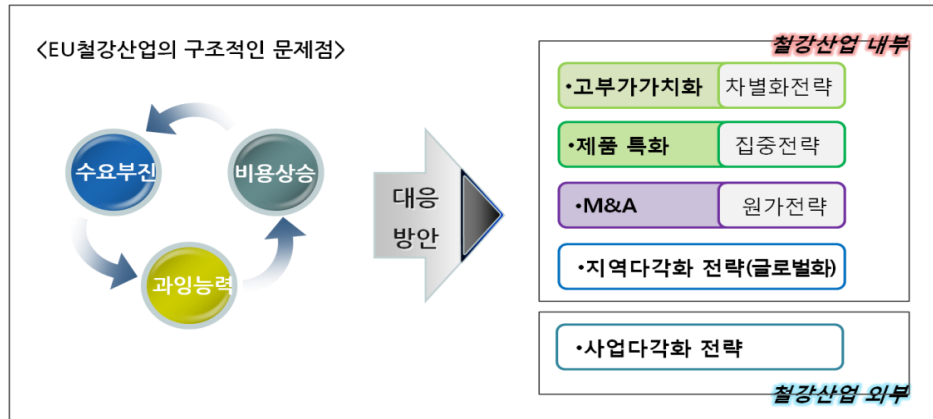
□ (①고부가가치화 및 제품특화)고생산 비용과 저가 수입재에 대응하기 위해 철강사마다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제품별 특화전략을 전개

- 대부분의 전문가도 공급과잉과 시장침체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부가가치화'를 제안하고 있지만, 자칫 파이가 적은 시장에서 공급과잉화 우려
 - ArcelorMittal, Tata, ThyssenKrupp 등 EU 3대 철강사는 봉형강류, 스테인리스, 특수강 부문을 매각하고 자동차 등 고급 판재류 제품 중심 설비투자로 차별화
- 한편, 독일(Salzgitter, Dillinger Hutte)과 북유럽 철강사(SSAB, Outokumpu)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후판, 형강, 유정용 강관, 스테인리스 등 특정 제품에

특화하여 고수익성을 지향하고 있음

- 특히 스테인리스 업계는 통합화 진전에 따른 제강능력 30% 축소, 가동률 향상('09년 54% → '16년 81%)으로 수익성이 크게 회복

〈EU 철강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응방안〉



□ (②M&A)2000년대 중반 유럽 선진시장에 대규모 M&A 통해 진입한 Mittal과 Tata는 추가 M&A를 통한 사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 중

○ ArcelorMittal은 시장지배력 확대, 시황조절 능력 제고, 경쟁자 진입 차단 등을 통한 수익성 개선을 목표로 이탈리아 ILVA 인수를 추진 중

- 금융위기 후 설비폐쇄, 비핵심 및 부실자산 매각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행한 결과 재무구조가 개선되어 인수 여력이 생김
- 유럽 최대 단일제철소인 ILVA의 Taranto(임해 입지) 인수 시 서유럽 내륙에 위치한 다른 제철소를 폐쇄하고, 고부가가치 판재류 비중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 고로 조업 중단 사태를 야기했던 환경문제에 우선 대응, 조강생산 480 → 600만톤 이상 증대, 고부가가치 설비투자를 인수 입찰서에서 약속
- 성공 시 열연시장 지배력이 34%→44%로 확대(능력기준)될 수 있으나, 유럽 내 형성돼 있는 反Mittal 정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금융위기 후 기업 내부의 설비최적화 차원에서 프랑스, 벨기에 등에서 과감한 설비 폐쇄와 종업원 감축을 단행하자 노조와 현지정부로부터 강한 반발에 직면
 - 이탈리아 정부도 자국기업에 매각을 선호하고 있는데, 현재 이탈리아 Acciaitalia 컨소시엄(이탈리아 정부 채권단, 이탈리아 전기로사 Arvedi, 인도 JSW Steel)과 경쟁 중

- 한편, Tata는 영국 사업장의 매각계획을 발표한 후 반발이 커지자 대안으로 ThyssenKrupp(이후 TK)과 합병안을 내놓았으나 이마저 중단된 상태
 - 작년 6월 갑작스러운 Brexit 결정과 영국 사업장의 과중한 연금 부담 문제로 TK와의 협상이 결렬되고 Tata 그룹총수가 경질되는 사태까지 유발
 - 임시 그룹회장직에 복귀한 Ratan Tata가 12월 말 중장기 영국사업 운영 계획을 발표했으며, 2017년 초 종업원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
 - 연금 개혁 조건으로 최소 5년간 Port Talbot 제철소 2개 고로 유지, 10억 파운드 규모의 설비투자 단행, 총 8천 개 일자리 유지 등을 제시
 - Tata와 합병 소식에 TK 종업원들의 반대도 컸는데, 합병 또는 매각할 만한 다른 철강사가 없어 고비용 구조에 따른 저수익성이 지속될 전망
- (③사업다각화 및 지역다각화)일부 철강사는 유럽 철강산업의 구조적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종 전환까지 추진 중
- 1980년대부터 기계·플랜트·플라스틱 분야 등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왔는데, 최근 철강사업의 저수익성 심화로 다각화 추진 가속화
 - TK는 ‘대서양 성장전략’ 실패 이후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모태 사업인 철강을 축소(2015년 비중 23.4%)하고 기술회사로 점차 변신 중
 - 작년 11월 2020년까지 기술회사로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중기계획을 발표. 브라질 상공정 매각과 유럽 철강부문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추진 예상
 - 오스트리아 Voestalpine는 복합 소재 및 가공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과 자본재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기업을 지향
 - 수익성이 저조한 철강사업에서는 자동차강판에 특화하여 EU에서뿐 아니라 성장성이 높은 중국·미국·남아공·루마니아에서 1억 유로 이상의 투자 추진
 - Metal Engineering, Metal Forming 등 금속가공 분야 비중은 2015년 44%에 달함
 - 특히 세일가스로 연료비가 크게 낮아진 미국에서 연산 200만톤의 DRI 공장을 건설하여 작년 10월 가동에 들어감(U\$7.4억을 투자한 최대 해외사업)

4.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부상

□ 유럽 철강산업은 주요 철강사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2000년대와 같이 자력으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외부 구원투수의 지원이 다시 필요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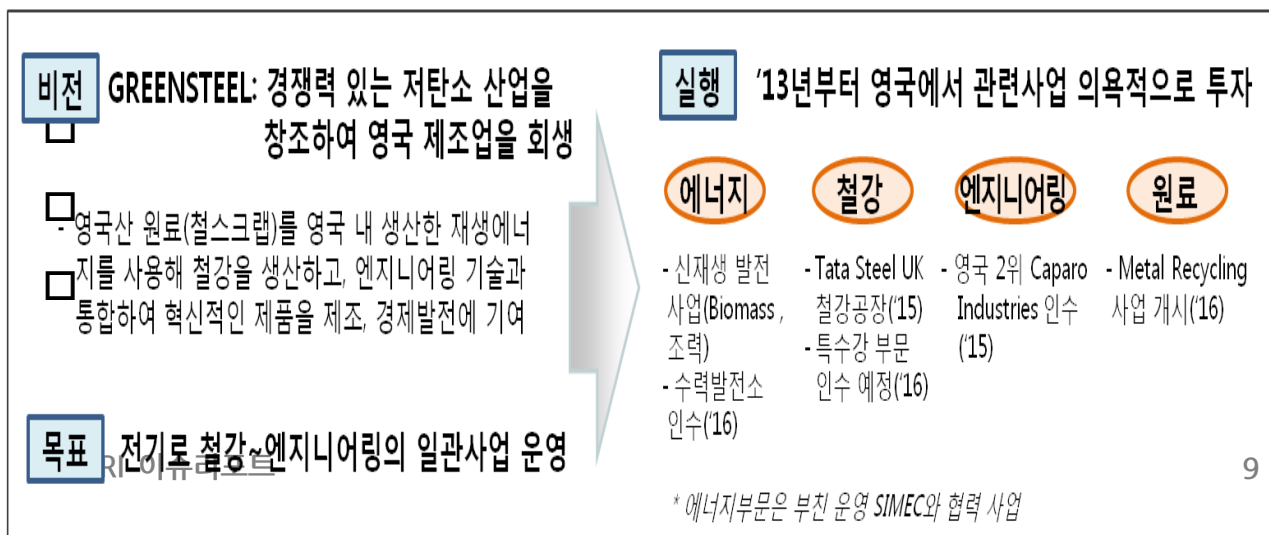
○ 작년 Tata UK 인수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7개사를 살펴보면 타지역 외국 철강사 이외에 부실기업 인수 전문기업들이 등장한 것이 특징

- 외국 철강사: 미국 1위 Nucor, 인도 민간 1위 JSW Steel, 중국 1위 하북강철
 - JSW Steel은 이탈리아 ILVA 인수전에도 참여하고 있고, 하북강철은 작년 세르비아 철강사를 인수하는 등 유럽 철강산업 진출에 의욕적
- 인수 전문기업: 영국의 Liberty House, Excalibur(Tata UK 임직원 주도 기업), Endless(Private Equity), 프랑스 Greybull Capital(Private Equity)

□ (①Greensteel Strategy)Liberty House의 Sanjeev Gupta는 1990년대 중반 세계철강 불황 시 혜성같이 나타난 Lakshmi Mittal 회장과 같이 기존 철강업계의 고정관념과 비즈니스 모델을 뒤흔들고 있어 관심 고조

- ‘Greensteel 전략’ 주창을 통해 순환경제에 적합한 21세기형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원료/에너지~철강~엔지니어링의 수직 통합화를 지향, 수익성 확보
 - Greensteel은 수입 원료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산 원료(철스크랩)와 자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바이오매스, 조력)를 사용해 강재를 생산하고, 자국 내 엔지니어링 기술과 통합, 혁신적인 제품을 제조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개념
- Sanjeev Gupta는 사업모델 구상단계를 지나 M&A를 통해 3년 만에 400만톤의 철강능력을 확보했으며, Tata UK 특수강 부문도 인수할 예정

〈Liberty House Group의 비즈니스 모델〉



[참고] Sanjeev Gupta와 Lakshmi Mittal 회장 비교

	Sanjeev Gupta	Lakshmi Mittal
출생	1971 년생(인도 편잡주 편자비 상인)	1950 년생(인도 라자스탄주 마르와리 상인)
학력	영국 캠브리지대 학/석사(경제, 경영학)	인도 콜카타 St. Xavier 대학 상학
철강업 배경	조부가 철강공장 운영	부친이 전기로 공장 운영
창업	'92 년 아프리카, 아시아 중심 무역회사	'76 년 인도네시아 진출하여 전기로 사업
세계 철강 업계 데뷔	'13 년 Tata UK 의 Newport 공장 인수	'89 년 트리니다드 토바고 철강사 인수 후 재건
Biz Model	- 친환경, 사회적 책임, 통합화로 지속가능하고 균형있는 글로벌사업 추진 - 후방(하공정) 통합화로 고부가가치화	- 저원가 통한 고수익 확보, 전방(원료) 통합화 - 글로벌화 통해 규모와 범위의 경제 추구
실적	3 년 만에 400 만톤 능력 확보, Tata UK 특수강 부문 인수 예정(우선협상자)	17 년 만에 세계 1 위 철강사 부상('06 년)

□ (②De-integration Strategy)앞으로 상공정 운영 부담이 점차 커지면서 생존전략 차원에서 탈일관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

○ 2000년대 TK가 브라질에 상공정을 직접 투자해 크게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웃소싱 방식을 활용한 탈일관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세계적인 공급과잉 상태에서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열연 내수가격이 높아지고, 수입 슬라브 가격은 낮게 형성될 경우 탈일관화 추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전문가들은 Tata UK Port Talbot 제철소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고로·전로·연주 등 상공정 능력을 40~60% 삭감하고, 부족한 슬라브를 외부에서 조달해 열연 가동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함

○ TK가 브라질 상공정(CSA) 매각에 성공할 경우에도 유럽 사업장 가동을 위해 슬라브 아웃소싱이 계속 필요한 상태(외판 슬라브 업체의 부상 예상)

- Voestalpine의 미국 DRI 공장 건설도 크게 보면 '탈일관화' 전략의 일환
- 또한 TK로부터 미국 Calvert를 인수한 ArcelorMittal도 지속적으로 슬라브를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산업 전체로 보면 '탈일관화' 추세가 진전

5. 결론 및 시사점

- 유럽 철강산업은 내부 모순이 커진 EU 체제하에서 수요 추세, 과잉공급, 고비용 문제 등으로 쇠락 경향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이미 Mittal, Tata 등 외국계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 철강업계는 더욱 더 외국계에 지배될 가능성이 높고, 살아남는 유럽계 기업은 특정 제품·수익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
 - 고비용 구조에 대응하거나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 모델들이 대두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등장할 전망
 - 과거 유산(legacy)에서 자유로운 비유럽계 기업 및 기업가 중심 활약 예상
- 한국 철강산업은 기본적으로 EU와 비슷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주요 수출시장이자 선진기술개발 동향을 습득해온 EU 철강산업의 쇠락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 한국 철강업계도 Negative China Effect로 인해 내수부진, 수입증가,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의 도전을 받고 있음
 - 더욱이 동북아 지역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사이에서 ‘샌드위치식’ 경쟁에 직면
 - 이에 한국 철강산업은 ①극한적 원가절감, ②내수시장 지키기, ③동북아 3국 간 협력 ④순환경제에 적합한 사업모델 검토 등의 대응책이 필요해 보임
 - ①극한적 원가절감: 철강공급 과잉이 지속되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가격 프리미엄이 낮아짐. 결국 가격으로 승부하게 되어 원가경쟁력 확보가 중요
 - 특히 중국과 인도의 주요 철강사는 제품 품질도 양호하면서 노무비 수준이 매우 낮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
 - ②내수시장 지키기: 철강 수출환경이 녹록하지 않은 가운데 국내 수요 산업과의 공생을 위한 산업 간 상호협력 강화
 - 제조업 생산비용 감소, 시장보호, 관세 및 세금 관련 대정부 요청에서 공동 보조

- ③동북아 3국 간 협력: 세계 1위(중), 2위(일), 6위(한) 생산국으로서 세계 생산 비중이 60%에 달해 상호 협조할 경우 공동 생존 가능
 - 특히 세계 수출의 40%를 담당하는 3국이 EU, 미국, 인도, 동남아 등 주요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는 자율규제 위한 신사협정 추진 검토
- ④21세기 새로운 경영환경에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방식 적용 검토 필요
 - 중국에서 대량 발생하는 철스크랩 활용 또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안
 - 아웃소싱, M&A,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 등 가치사슬 간 효율적인 연결방안 등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단행본]

CRU, 『Steel Sheet Products Monitor – Historical Prices』, 2016.3

ISSB, 『World Steel Exports』, 2014, 2015

[보고서]

EuroStrategy Consultants, "Steel Industry Restructuring – The EU Experience", 2006

OECD, "Excess Capacity in the Global Steel Industry and the Implications of New Investment Projects",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Policy Papers, 2015

OECD, "Restructuring of the European Steel Industry", 2016

OECD Steel Committee, "The European Steel Action Plan", 2013

[홈페이지]

ArcelorMittal 홈페이지 (<http://corporate.arcelormittal.com>)

EUROFER 홈페이지 (www.eurofer.org)

IHS 홈페이지 (<https://www.ihs.com>)

Liberty House 홈페이지 (<http://www.libertyhousegroup.com/>)

ThyssenKrupp 홈페이지 (<https://www.thyssenkrupp.com>)

Voestalpine 홈페이지 (<http://www.voestalpine.com>)

World Steel Association 홈페이지 (<http://www.worldsteel.org>)

[언론]

Steel Times International, "Challenging time for European steel", 2014.4

Reuters, "Thyssenkrupp profit drop highlights steel merger need", 2016.11.24

The Telegraph, "Sanjeev Gupta: the man who sees opportunity in UK industry where others don't", 2016.12.3